

한강 투신시도 AI로 막는다

서울기술연구원-소방재난본부 협력 한강교량 맞춤형 CCTV로 관제 투신 전후 상황에 신속 대응 가능

한강교량에서 투신 시도를 감지해 인명사고를 막는 기술이 개발됐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협력해 '한강교량 맞춤형 CCTV 관제기술'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원은 본부 수난구조대의 출동 현황 정보, CCTV 동영상, 감지센서 데이터, 투신시도 현황 정보, 신고이력 및 통화내용(문자)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한강교량 투신시도 관련 탐지-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개발한 관제기술은 인공지능이 동영상 딥러닝으로 투신 시도자의 패턴을 학습해 위험상황을 탐지-예측한 뒤 해당 지점의 CCTV 영상만을 선별, 관제요원의 모니터에 표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한강대교.

/김현정 기자

서울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반의 선별관제로 투신 전후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모니터링 공백을 최소화해 관제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소방재난본부 수난구조대는 여의도, 반포, 독섬, 광나루에 위치해 있으며 한강교량에 설치된 CCTV와 감지센서(장력, 레이저) 등을 활용한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임무를 맡는다. 이

날 본부에 따르면 매년 서울시내 한강교량에서 발생하는 투신시도는 평균 약 486건이다. 구조대의 활약으로 투신 시도 대비 생존 구조율은 96.6%에 달한다.

이번에 개발된 관제기술은 오는 10월 구축 예정인 '한강교량 통합관제센터'에 시범 적용된다. 한강교량 맞춤형 CCTV 관제기술을 연말까지 테스트하고 본격 도입할 방침이라고 시는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내달까지 악기 기증으로 나눔 실천

서울시, 수리 후 재기증

서울시는 내달 31일까지 악기 기증·나눔 접수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부터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악기를 기증받아 수리·조율한 다음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이를 재기증하는 '악기기증·나눔' 캠페인을 벌여왔다.

그간 시는 총 1789점의 악기를 기증받아 수리·조율한 뒤 취약계층 학생 등에 1536점의 악기를 재기증했다.

사용하지 않는 악기를 가진 시민 누구나 나눔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희망자는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향후 시는 기증받은 악기로 실력을 쌓은 시민·학생들의 연주회부터 생활 예술오케스트라 콘서트까지 다양한 후속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악기를 기증받은 이들이 지속적으로 음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정부, 장마철 대비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

여름 장마철을 대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14~20일 전국 주요 하천과 하구 내 쓰레기 집중 수거에 나선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 유역 지류·지천을 포함한 전국 주요 하천, 하구, 연안 그리고 대형댐 등 34개 댐 상류 지역 주변에 '쓰레기 집중정화주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비닐류 쓰레기는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하천과 해양을 오염시킨다. 장마철에 물이 불어나 바다까지 흘러갈 우려가 큰 플라스틱류 생활폐기물, 폐농약

병·폐비닐류 영농폐기물, 초목류 등 방치 쓰레기가 집중 수거 대상이다.

한국농어촌공사도 올해 처음 참여해 농업용 저수지 안 방치 쓰레기를 치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4일 대형댐 인근 옥천군 석호리를 찾아 쓰레기 수거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부유 쓰레기 상당수는 여름철에 발생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쓰레기 정화 활동을 펼친다"며 "하천·하구 부유 쓰레기로부터 환경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적 예방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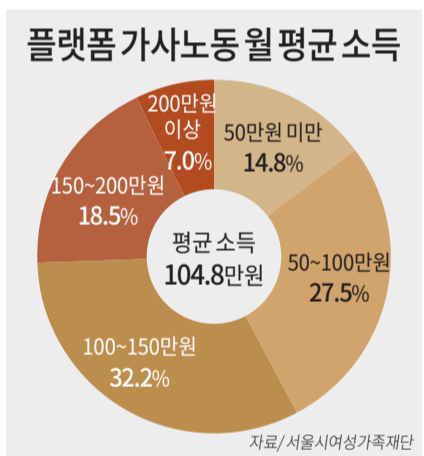
플랫폼 가사노동자, 월 105만원 번다

시간당 소득 1만49원 서울시 생활임금 못 미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이 104만8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소득은 1만49원으로 서울 지역 물가를 반영한 서울시 생활임금(1만523원)에 미치지 못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지난해 플랫폼 가사노동자 35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였더니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의 14.8%는 월 소득이 50만원 미만이었으며, 27.5%는 월 50만~100만원 미만, 100만~150만원 미만은 32.2%, 150만~200만원 미만은 14.7%에 그쳤다. 있다 하더라도 도움은 18.5%, 200만원 이상은 7%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은 일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평가, 상해, 무리한 요구 등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플랫폼 기업이 이를 조정·해결하는 절차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14.7%에 그쳤다. 있다 하더라도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37.1%밖에 되지 않았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제10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68년 배제를 넘어: 가사노동자 권리 보장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연다.

재단은 "지난 5월 21일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줄곧 법적 노동자 지위에서 배제돼왔던 가사노동자가 드디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면서 "이 자리에서는 법률 제정의 의미 및 특징, 향후 전망과 함께 플랫폼 가사노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서울교통공, '또타 일러스트 공모전' 개최

캐릭터 활용... 창작그림 모집

서울교통공사는 '또타 일러스트 공모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또타는 2017년 통합공사 창립 이후 서울 지하철을 대표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공사의 공식 캐릭터다. '또타'에는 '또, 또, 타고 싶은 서울 지하철'이란 의미가 담겨 있으며 전동차 측면 모양을 형상화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참신한 모습으로 표현해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공사는 이달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공식 캐릭터인 '또타'를 활용해 서울 지하철의 다양한 매력이 담긴 창작 그림을 모집하는 공모전을 진행한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나 팀이 아닌 개인으로만 응모 가능하다.

공모전의 주제는 따로 없으나 그림에 또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외 전체적인 내용은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1인당 2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공모기간 중 1회만 접수, 응모 후 수정은 불가하다고 공사는 덧붙였다.

공모전의 총 상금은 600만원이며, 공사는 총 38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상금과 부상(또타 인형)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안전지킴이단과 시설물 점검

관내 16개 지역

서울시는 안전지킴이단과 함께 이달 23일까지 한강, 종로천 등 관내 16개 지역의 자전거도로와 시설물을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자전거단체 협의회 등 비영리 민간 자전거 단체로 구성된 서울시 안

전지킴이단은 4인 1조로 편성돼 하루 평균 20km 구간을 순차 점검할 예정이다.

안전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확인되면 수리, 교체, 보수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시는 9월 장마철 이후에도 풍수해로 파손 우려가 있는 자전거도로와 시설물을 재점검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6월 14일 (월)

음력: 5월 5일

수도권 날씨

20~31°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해돋이 05:10 | 해질 19:5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中, 스옌시에서 대규모 가스관 폭발로 다수 매몰 /사진 뉴시스
- ▲미 텍사스 오스틴서 총기난사로 14명 부상... 2명 수배

- ▲WHO "G7 약속한 백신 턱없이 부족, 1년새 10배 필요"
- ▲홍콩 민주활동가 아그네스 차우, 7개월 만에 석방돼



- ▲사우디, 2년 연속 해외 하지 순례객 안 받아
- ▲EU-영국, G7서 브렉시트 '북아일랜드 협약' 둘러싸고 충돌 /사진 뉴시스